



INTERNATIONAL JOURNAL of  
CRAFTS and FOLK ARTS

Volume 4, 2023

리뷰

제1회 전통 공예와 민속 예술 심포지엄  
(Co-focal Point of Sukhothai) 위티야 피통나푸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Focal Point of Jinju) 정 병 훈

## 2023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진주는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를 산업화하고 국제화하는 데에는 소홀했다. 따라서 진주시는 UCCN 회원이 된 이후 공예와 민속예술 분야의 국제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년마다 개최되는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와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등이 대표적이다.

제1회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는 진주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UCCN 공예·민속예술 서브네트워크 도시 간 교류 활성화, 진주예술인의 창작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1년 11월 4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태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불가리아, 베냉,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등 10개국 12개 창의도시 출신 13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부대행사로 진주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여작가들의 전시, 비엔날레에 참가하는 해외작가들의 라운드테이블, 국제포럼, 특강 등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의 작가 43명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됐고, 관람객 수는 1만 5000여 명에 달했다.

제2회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는 '오늘의 공예, 내일의 전통'이라는 주제로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40일간, 진주역 차량정비장과 구 진주역사 일대에서 개최됐다. 10월 31일 열린 개막식에는 진주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귀빈, 조직위원, 해외 작가 10명, 국내 작가 30명, 해외 창의도시 포컬포인트 4명 등이 참석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10개 도시(발라렛, 바다, 치앙마이, 코모, 가브로보, 가나자와, 쿠타히아, 와가두구, 파두차, 단바사사야마)의 작가 10명과 현지 작가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시는 두 곳에서 진행됐다. 먼저, 구 진주역에는 해외 창의도시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었



고, 차량정비장에는 '진주소목장 인 디자인'과 국내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됐다. 진주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별도의 전시 공간에 전시되었다.

본 전시에 앞서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서울 인사동 KCDF 갤러리에서 '진주 소목장 인 디자인' 섹션이 사전 전시됐다. 이번 섹션에서는 진주의 소목장과 디자이너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작품들이 전시됨으로써,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용을 모색하였다.

본 행사는 1925년경 건설된 진주역 차량정비장(등록문화재 제202호)을 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장으로 활용하여, 전통 가옥과 전통 건축물을 보존 및 재사용하고, CO2를 생성하는 건축물의 신축을 지양하는 사례를 선보였다. 이로써 올해 비엔날레는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 및 생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실천 사례를 배우고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비엔날레에는 제1회 비엔날레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총 45,380명의 관람객이 참관했다. 또한, 해외 창의도시 작가들의 수준 높은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 비엔날레 행사는 창의도시 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하고, 문화다양성이라는 UCCN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예술가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진주시로서는 공예와 민속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회가 됐다.





진주역 차량정비고

정병훈  
(포칼 포인트, 진주)